

“키우랄 땐 언제고”… 사육곰, 정부가 책임져라

농가소득 증진위해 권장… 국제 여론에 수출길 막혀

환경부장관 “보존가치 없다”… 협회, 매입·시설비 촉구

나주시 노안면과 반남면에서 반달 가슴곰 42마리를 키우고 있는 유현재(60)씨는 사육장만 쳐다보면 율화통이 터진다. 최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곰 사육 농가 문제는 정부 지원 없이 농가 자체를 맡겨야 한다”는 말에 전국 곰 사육 농가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는데, 지난 17일 제주의 한 사육장에서 곰의 공격을 받아 사육사가 숨졌기 때문이다.

유현재는 ‘곰을 키우면 돈이 된다’는 소리에 20년 전, 6000만원을 들여 곰 10마리 사왔다. 하지만 ‘소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출 목적으로 일본·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사육을 허용한 과거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곰의 국제교역이 금지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키워도 팔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인건비와 시설 유지

비를 뺀 사료 값만 한 해 4200만원이 든다는 게 유씨의 하소연이다.

이처럼 정부의 말만 믿고 곰 사육을 시작한 전국 곰 사육 농가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19일 전국사육곰협회는 “20일 환경부를 방문해 정부의 사육 곰 농가에 대한 지원을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현재 ▲전국 사육 곰의 정부 구입 ▲다른 가축 사육을 위한 시설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전국 곰 사육 농가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육곰 농가를 우롱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윤 장관은 지난 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사육곰 농가에 대한 국가 배상 및 해결 방안은 전 정부에 따져야 한다. 우수리종 반달가슴곰 두 마리 이외의 모든 사육곰은 보전가치가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광주 1농가 8마리, 전남 13농가 164마리의 곰이 사육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80~90년대 융단 등 곰의 국내 수요가 늘고, 수출할 수 있다는 소식에 사육을 시작했지만 정부가 지난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해 수

출길이 막혔다.

유씨는 “국내에서는 현재 10년 이상 사육한 곰만 도축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나?”면서 “이번 환경청 방문에서 정부가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 세종시에 아예 곰을 풀어 버리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곰 사육 농가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권장한 곰 사육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 농가는 암암리에 융단 등을 유통하는 등 곰 사육은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오광록·박정렬기자 kroh@

전기료 평균 5.4% 인상

내일부터 주택용 2.7% 산업용 6.4% ↑

전기요금이 21일부터 평균 5.4%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 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전기요금이 이같이 인상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6.4% 인상돼 용도별 요금 중 가장 많이 오른다.

주택용은 2.7%, 일반용(빌딩·상업 시설용)은 5.8% 각각 인상하고 교육용(평균)은 동결했다. 농사용은 3.0%, 가로등용과 산야전력은 5.4% 각각 올랐다.

5~6월부터 냉방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6월도 여름철 요금(일반

용·산업용·교육용 전체)을 적용한다. 개편이 예상됐던 주택용 누진제(현행 6단계, 누진율 11.7배)는 여전히 의견이 있어 사회적 합의 도출 이후 단계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1월 평균 4.0% 인상 이후 10개월 만이다. 앞서 2011년 8월(4.9%), 2011년 12월(4.5%), 2012년 8월(4.9%)에도 인상돼 최근 3년간 총 5차례 요금이 올랐다.

월평균 310kWh를 쓰는 도시가구의 경우 인상 전 4만880원이던 전기요금을 5만130원으로 월 1310원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광주시 ‘창조행정’ 전국 지자체서 벤치마킹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창조행정 사례들이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전국 행정기관의 롤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5기 시장 유희열이 창조행정 정책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최초로 시도해 성공한 사례만 20여건에 이른다.

이를 배우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찾아온 공무원 수만 해도 1000여명을 넘어섰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창조행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

고, 민간 자본과 시설을 유치해 수익을 올린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연·덕남정수장 소수력 발전소 건설이다. 시는 애초 예산 31억원을 투입해 직접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전국 자치체 중 최초로 민간공모를 해 전액 민간투자를 받아냈다. 계약 조건은 오는 2016년부터 30년간 5억원씩 총 150억원을 광주시에 지불하고, 30년 뒤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상수도시설 13곳의 유류부지에 헛빛발전소를 만들기로 하고,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

할 사업자를 모집중이다. 민간업자는 매년 2억원의 임대료 등을 납부하고, 20년 뒤 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사실상 버려진 땅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친환경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앞다퉈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광주인권장을 제정하고 인권지표를 개발해 민주·인권·평화를 대표하는 도시가 됐다. 차치 막연한 개념에 머무를 수 있는 인권 부분을 구체화했다

는 점에서 국내외의 호평이 이어진 사례다.

버려진 지방 세원을 발굴한 사례는 창조행정의 백미로 꼽힌다. 시는 연이올 4% 이상인 지방세 2408억원을 3.5%대 저금리 민간자금으로 변형해 100여억원의 이자를 절

감하는 ‘공공자금 관리 기금 차입선 변경 정책’을 발굴해 냈으며, 부도 아파트의 취득세원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밝혀낸 뒤 대한주택보증회사와 건설사로부터 취득세 44억원 받아냈다. 전국 자치단체 기준으로 1350억원에 이른다.

시는 이 외에도 ‘헬세먹는 하마’로 불리는 ‘제 2 순환도로 1구간 행정 소송’에서도 첫 승소를 거두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올바른 투자 방향을 서울 등 전국 자치단체에 제시했다.

시는 또 텐키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 유도로 공정한 입찰행정의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제주시 등에서 이미 벤치마킹해 제도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나주에 전남 최초 친환경농산물 전문 물류센터

2015년까지 289억 투입… 선별·포장·저장시설 등 건립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나주에 친환경 농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물류센터가 들어선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일원에 국도비 등 289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5년 말까지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부지 3만m²에 전체면적 1만4000m² 규모로 건립될 물류센터에는 집하장을 비롯해 선별·포장, 저장저장시설, 판매장, 집·배송장, 안전성 검사실 등이 들어선다.

특히 안전성 검사실은 생산된 농산

물의 잔류농약 검사 등 각종 검사를 하는 시설로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된다.

물류센터는 전남지역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에서 생산한 각종 과일과 채소를 수집·선별한 뒤 수도권 소비자와 학교급식 등으로 공급한다.

친환경 농산물만을 취급함에 따라 그동안 일반 도매시장 등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친환경 농산물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할 전망

이다.

전남도는 연말까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후 내년 초 위탁운영 할 것을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실시설계 등을 거쳐 6월에 공사에 착공, 2015년 말 완공한다.

전남지역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는 6만5891농가에 재배면적은 8만 1890ha에 달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물류센터가 건립되면 생산자는 제값을, 소비자는 민족화장을 통해 먹을 수 있는 유통 시스템이 갖춰지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성 검사실은 생산된 농산

“경력단절 여성 취업 도와드려요”

광주여성발전센터 25주년 기념, 오늘 ‘미니취업 박람회’

광주여성발전센터가 개원 25주년을 기념해 미니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광주여성발전센터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구 치평동 센터 내에서 ‘2013년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찾아가는 미니취업 박람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취업 박람회에서는 구직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과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원스톱 취업 서비스 등 다양한 일자리 정보가 제공되며, 개인별 직업 선호도 검사와 행동유형 검사, 이력서 클리닉 등 다양한 직업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센터는 또 이날 오후 4시부터 개원 25주년 기념행사로 여성 회원들이 직접 만든 요리와 의상 등을 전시·판매하고, 어울마당 행사로 편댄스와 우쿨렐레, 외국어 학창 등 6개 분야의 문화공연도 진행한다.

황인숙 센터소장은 “여성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여성이 일터와 가정에서 당당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개원 25주년을 기점으로 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청년창업의 꿈 펼쳐라”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3 청년창업 페스티벌’에서 여성 관객들이 청년창업업체가 내놓은 가방 모양의 설팅 케이크를 만져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백운동 까치고개 (동아일보 사옥)

메디칼센터 임대 (병·의원)

2층 : 양·한방 입점 완료
3층 : 피부과·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입점 가능



넓은 주차장(80대주차가능) / 저렴한 임대비

문 | 062) 651-6581
의 | 010-3690-7790

인턴사원 모집공고

정보통신산업의 선두주자 “큰마 민용재” 대신정보통신에서 인턴사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분

부문	인원	전공 및 우대사항	근무지역
IT부문	20명	● 컴퓨터관련, 정보처리관련 전공 우대 ● 전산계산, 전자통신, 정보통신 관련학과 전공 우대 ● 전파, 통신, 전자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서울지역 전남광주 (희망지역 기재)
공통 사항		● 2014년도 졸업예정인자 ● 인턴십기간 3개월(근무성적 우수자 정규직 전환) ● 월급여 110만원(중식제공) ● 4대보험 가입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 전형방법

- 가. 서류전형
- 나. 면접

▶ 제출서류

- 가. 이력서 사진부착(일반양식)
- 나. 자기소개서 A4 2매 이내
- 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 원서접수

- 가. 접수기간 : 2013. 11. 22(금) 접수분까지.
- 나. 접수방법 : e-Mail 접수(eon@dsic.co.kr)
- 다. 문의처 : T. 02-2107-5011(홈페이지 : www.dsic.co.kr)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에 문의 바랍니다.

대신정보통신주식회사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